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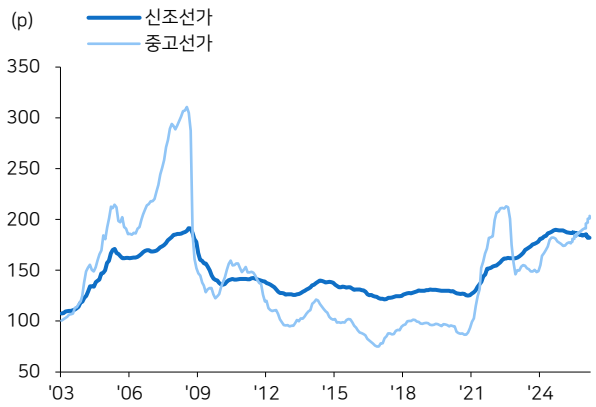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6. 4. 9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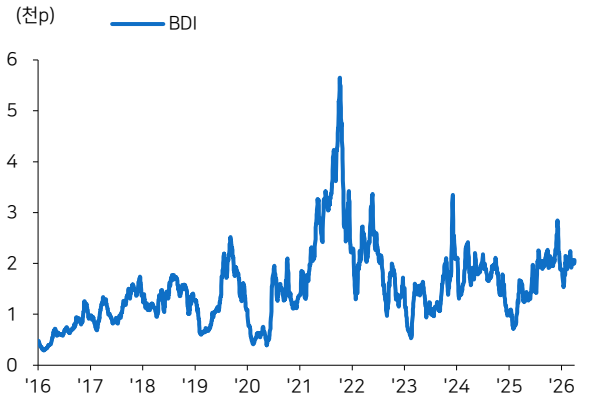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2.2p (+0.2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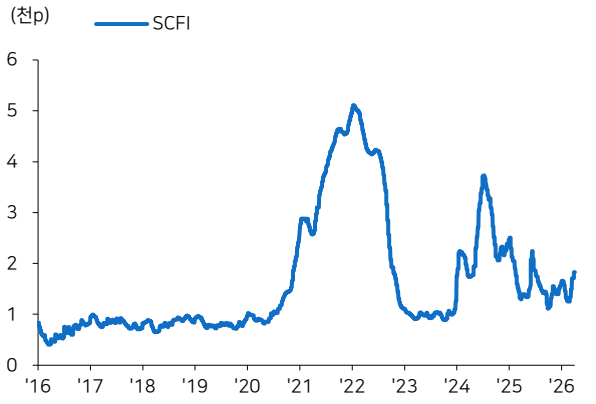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93.0달러 (+3.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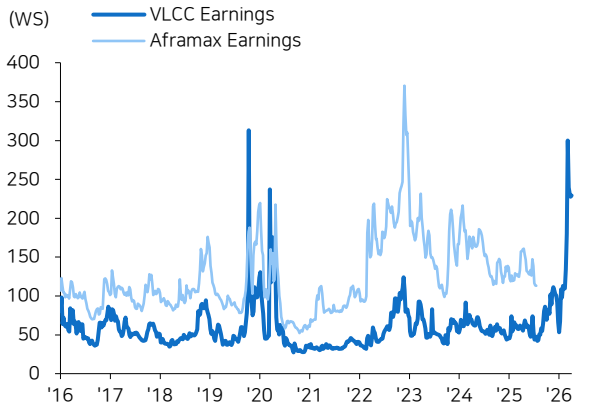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95.0p (+2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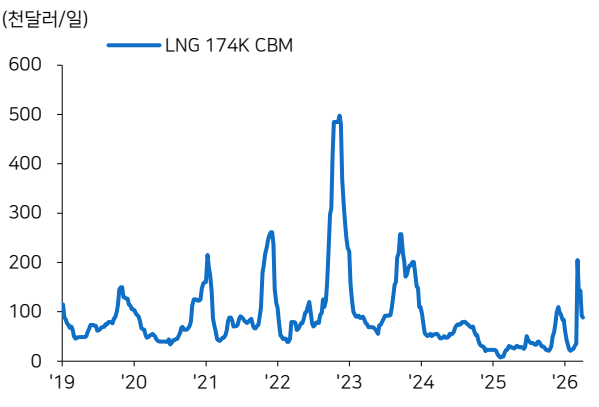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855.0p (+28.2p WoW)



VLCC Spot Rate 229.1WS (+1.6p WoW)



LNG Spot 운임 88.5천달러 (-4.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Greek shipowner John Dragnis inks VLGC brace as part of major energy push (TradeWinds) https://zrr.kr/DLUB1d

그리스 선사인 Oceangold가 HD현대중공업에 VLGC 2척을 발주하며 에너지 운송 분야의 전략적 확장에 나선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은 총 2억 3,200만 달러 규모로 척당 가격은 약 1억 1,600만 달러이며, 선박들은 HD현대삼호에서 건조되어 2028년 4분기와 2029년 1분기에 각각 인도될 예정이라 전해짐. Oceangold는 미국 수출 성장과 아시아 수요에 기반한 LPG 해상 물동량의 구조적 성장을 확신하며, 이번 발주를 원유 및 석유제품 운반선에 이어 가스선까지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인프라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짐.

HD 현대중공업 "자료 제공 범위 과도하다"...법정서 방사청과 충돌 (뉴스저널리즘) https://zrr.kr/kRvvrA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 배포 중단 가처분 심문에서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에 제공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생성된 핵심 기술 자료 14건의 경쟁사 공유는 계약상 제3자 제공 동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정 경쟁 구도를 왜곡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해짐. 방위사업청은 입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며, 재판부는 다음 심문 기일인 4월 22일에 자료 검토를 이어가고 한화오션의 보조참가 허용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알려짐.

노란봉투법 한달...울산 HD 현대중공업 외 진척 더뎌 (경상일보) https://zrr.kr/bar3BM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사건만 273건에 달했다고 보도됨. 울산 지역에서는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S-OIL, SK에너지, 고려아연주식회사 등 원청사를 대상으로 분리교섭을 신청하여 이에 관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해짐. 산업현장에서는 사용자성 인정과 단체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있으며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권 확보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알려짐.

한화오션, 캐나다 스파텍 방문...잠수함 현지 공급망 구축 탐색 (글로벌이코노믹) https://zrr.kr/WaHVN1

한화오션이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온타리오주 복합소재 전문기업인 스파텍 컴포지트 시설을 방문해 현지 공급망 구축을 타진한다고 보도됨. 이번 방문은 한화오션이 주계약자로 선정될 경우 스파텍을 핵심 복합소재 제조 파트너로 검토하기 위한 사전 평가 과정이며, 수주 성공 시 첨단 복합소재 구조물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전해짐. 한화오션은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캐나다 정부의 조달 기준인 산업 참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현지화 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웰링턴 카운티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알려짐.

Santos facing another 10 days to restart production at flagship gas project (Upstream) https://zrr.kr/G51rYh

호주 Santos사가 운영하는 Barossa 가스 프로젝트가 FPSO 설비의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고 4월 18일경 생산 재개를 목표로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도됨.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인 BW Opal FPSO의 가스 압축기 실 교체와 열교환기 세척 작업을 마쳤으며, 이를 통해 일일 8억 5,000만 입방피트의 가스 처리 용량을 온전히 활용하여 Darwin LNG 시설에 원료를 공급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해짐.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6월 말 실질적 완공을 앞두고 있으나, 생산 정상화를 통해 연간 370만 톤 규모의 LNG 생산 및 수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1분기 중 이미 3회분의 화물이 판매되는 등 상업 가동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알려짐.

End to Iran war would support bulker markets but ceasefire brings 'mixed bag', say analysts (TradeWinds) https://zrr.kr/FiBfV4

미국과 이스라엘군, 이란 사이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소식이 건화물선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보도됨. 주요 해운 중개업체들은 해협 내 선박 통행 재개가 유가 하락과 선박 연료비 안정화로 이어져 운임 선물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있으나, 억류되었던 벌크선들의 방출로 일시적인 선복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고 알려짐. 이란 측이 일일 통과 선박 수를 제한하거나 고액의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단기적인 휴전 기간보다는 장기적인 인프라 재건 수요가 향후 건화물선 시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